

진화하는 불펜의 심장

심동섭



15일 현재 20홀드 기록...개인·팀 역대 최고 “이기는 경기 믿음 주자” 집중에 자신감 생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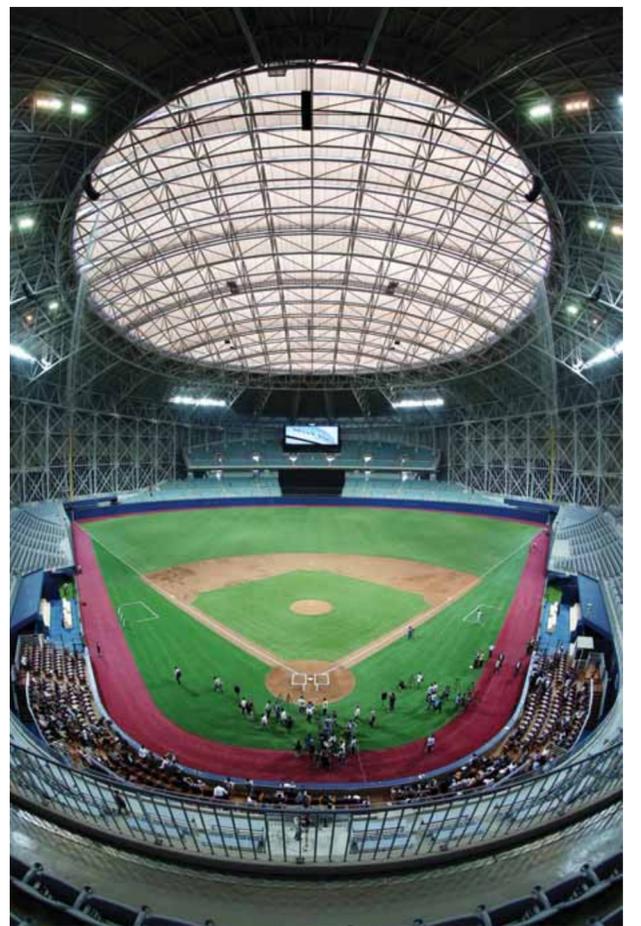
“홀드도 알아주세요”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승리를 이어가는 불펜 투수들이 있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심동섭은 자신의 한계를 깨어가고 있는 중이다. 마무리 후보로도 주목을 받았던 심동섭은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가장 믿음직한 활약으로 마무리 윤석민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있다. 심동섭은 15일 경기 전까지 4.47의 평균 자책점으로 1승1패1세이브 그리고 20홀드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9홀드를 기록했던 그는 목표로 했던 두 자릿수 홀드를 넘어 20홀드까지 넘겼다. 자신의 최다 기록이기도 하지만 역대 팀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2000년부터 기록되고 있는

홀드 부문에서는 2010년 손영민이 기록한 18개가 타이거즈 역대 최고 기록이다. 윤석민이 팀내 기록인 한기주의 26세이브를 넘으면서 조명을 받았지만 심동섭은 조용히 기록을 갈아치워 가고 있는 중이다. “좀 알아주세요”라는 진담 같은 농담이 나올만도 하다. 심동섭은 “안지만 선배와 같은 A급 선수들은 20홀드를 기본으로 쉽게 하는 것 같았지만 내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올해는 막상 해보니까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삼성 안치만이 31개의 홀드로 1위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3위는 넥센 조상우

(17개)가 기록하고 있다. 1위 삼성이 79승, 3위 넥센이 72승을 하는 동안 KIA는 61승을 거두는 데 그쳤지만, 그 속에서도 심동섭은 20홀드로 팀 승리를 이었다. 기술적으로 달라진 것 없는 2015시즌이지만 ‘마음가짐’이 변했다. 심동섭은 “내 성적을 살펴보니 크게 이기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평균자책점 등 내 기록도 관리를 못 했다. 등판할 때마다 ‘점차 승부다, 1점차 승부다’라는 주문을 걸고 올라간다. 그렇게 해도 쉽지는 않았다”며 “그래도 올 시즌 타이틀한 경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다. 이기는 경기는 확실

히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 또 뒤에 (윤석민)이 형도 있고, 좋은 선배들이 불펜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함께 기록을 만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밸런스 난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즌 마지막 밸런스가 잡히면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심동섭은 “밸런스가 왔다갔다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안 좋을 때 보면 팔이 뒤에서 늦게 나온다. 이대진 코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나도 그걸 알고 있기에 신경을 썼다. 불펜 투수들은 힘들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야하고 몸도 자주 풀어야 한다”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나는 경기에 나가는 게 재미있다.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다. 장담은 못 하지만 남은 시즌 불넷을 주지 않는 게 목표다(웃음). 팀의 5강이 유일한 목표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급 돔야구장 ‘고척스카이돔’ 공개



국내 첫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첫선을 보였다. /연합뉴스

덕아웃 T 특특

“추석때도 분위기 좋아야 하는데”

▲KIA 유니폼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 KIA 소속이지만 아직 빨간 유니폼을 입어보지 못했다는 선수. 상무에서 군복 무중인 투수 임기영(22)이 15일 챔피언스 필드를 찾았다. 한화에서 프로에 데뷔한 임기영은 지난해 12월 투수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타이거즈맨이 됐다. 그리고 바로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KIA지만 KIA가 아닌 것 같은 상태로 2015시즌을 보냈다. KIA와 친정팀 한화가 맞대결을 하게 되자 휴가 중인 임기영이 광주를 찾았다. KIA 덕아웃에서 여색한 표정으로 서있던 임기영은 “아직은 저쪽 덕아웃이 더 편한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2군 KIA전에

많이 나와서 새 팀에 조금 익숙해졌다. 지난 7월에 팔꿈치 부상이 와서 재활을 하고 있다. 내일 복귀인데 1년 더 잘하고 오겠다”고 언급했다. ▲나와주면 고맙죠 = 양현종의 몸상태가 남은 시즌 5강 싸움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지난 여름 실력발휘를 못했던 양현종은 설상가상 공에 손목을 맞는 등 부상이 겹치면서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팔상태가 좋지 않아 13일 등판을 결정한 양현종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면서 16일 한화전 선발로 예고됐다. 오는 21일(월) SK전 등판 여부는 미확정 상태다. 김기태 감독은 15일 “오전까지 상황을 체크해보

고 내일 등판이 결정됐다. SK전 등판 여부는 내일 경기가 끝난 뒤 상태를 확인해봐야겠다”면서도 “나와주면 고맙죠”라고 속마음을 보였다. ▲추석 때도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 갈 길이 구만리인 ‘호랑이 군단’이다. 알 수 없는 5강 싸움 속에 ‘이동운’까지 따르지 않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KIA. 특히 추석 연휴기간 스케줄이 고민이다. 26일 SK와 홈경기를 치르는 KIA는 추석 당일 휴식 후 28일 잠실에서 LG를 만난다. 29일에는 사직으로 이동을 해야하는 강행군이다. “이동이 만만치 않다. 추석 때도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라고 운을

뚫 김기태 감독은 “26일 경기가 끝난 후 서울에 올라가는 날짜를 고민하고 있다. 사직으로 이동할 때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로의 이동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립니다 = 최소시간 경기 팀과 최장시간 경기 팀의 만남이었다. 15일 경기전까지 KIA는 올 시즌 평균 3시간15분(연장포함)으로 최소경기 시간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화는 3시간 35분으로 가장 오랜 시간 경기를 한 팀이었다. 이날 경기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면서 중계팀의 시간 고민이 있었다. 이용철 KBS 해설 위원은 김기태 감독에게 “편성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다”며 “조금만 빨리 경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경태·안병훈·노승열...해외파 ‘안방’ 격돌

신한동해오픈골프 17일 개막

올 시즌 국내 남자프로골프에서 최강 멤버들의 대결이 성사됐다. 17일부터 나흘간 인천의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1·6953야드)에서 열리는 제31회 신한동해오픈에는 올해 일본, 유럽, 미국에서 맹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출전한다. 올 시즌 일본프로골프에서 3승을 올린 김경태(29·신한금융그룹)는 지난해 한국 오픈에 이어 2주 연속 국내대회에 나선다. 일본 투어 시즌 상급 랭킹 1위를 달리는 김

경태는 한국오픈에서 공동 14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고자 이번 주 대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명의 반가운 선수는 안병훈(24)이다. 지난 5월 유럽프로골프투어의 메이저 대회 BMW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성적이 좋지 않아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우승 인사를 할 기회를 잡았다. 노승열(24·나이키골프)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멤버라는 명예를 걸고 동갑내기 안병훈과 샷 대결을 펼치게 돼 흥미롭다. /연합뉴스

0.12점차

리디아 고, 세계랭킹 1위 박인비 맹추격

여자골프 역대 최연소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을 세운 리디아 고(18)가 세계랭킹에서도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바짝 추격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14일자 세계랭킹에서 12.82점을 받아 1위 박인비(12.9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3일 끝난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는 박인비와 격차를 0.12점으로 좁혔다. 1997년 4월생인 리디아 고는 18세 4개월

월 20일 나이에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라 2007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모건 프레스(미국)가 세운 최연소 메이저 우승기록(18세 10개월 9일)을 5개월여 앞당겼다. 리디아 고와 우승을 다투다 준우승한 렉시 톰프슨(미국)은 3위 스테이시 루이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과 김효주(20·롯데)는 지난해보다 각각 1계단씩 밀려 5위와 6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1만8천76명 수용...메이저리그 전용 홈 갖아

국내 첫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첫선을 보였다.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번지에 들어선 고척스카이돔은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8만 3천476㎡ 규모에 지붕을 덮는 완전 돔 형태다. 야구공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은빛의 유선형으로 설계됐다.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 높이는 67.59m로 일본 도쿄돔보다 5m 더 높다. 지붕에는 소음은 차단하면서 자연채광은 들어오는 투명자음막이 설치됐다. 덕분에 낮에는 조명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밝다. 경기·공연 소음과 비행기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천장 3중막과 소음 차단 유리, 소음흡수 커튼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미국 스포츠경기장 설계 전문회사의 컨설팅을 거쳐 메이저리그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와 메이저리그 전용 홈을 깔았고 펜스에는 메이저리그 규정한 7cm보다 두툼한 15cm 두께의 보호패드를 적용했다. 4층까지 이어지는 관중석은 총 1만 8천7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콘서트 같은 문화행사 때는 2만50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26~28도, 겨울철에는 18~20도의 온도가 유지된다.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 축구장, 농구장 등도 돔야구장 내·외부에 있다. /연합뉴스